

야마부키 성터

이와미 은광은 발견된 1527년부터 17세기 초기까지 전국 다이묘라 불린 지방 군벌들의 지배 하에 놓여 있으면서 다이묘 가문 간의 끊이지 않는 동맹과 대립을 거치며 몇 번이나 그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전투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 해발 414m의 요가이산 정상에 지어진 야마부키 성입니다. 오우치 씨족이 1530년대 초기에 지은 이 성은 매우 좁은 산 정상의 부지를 평탄하게 고른 뒤, 기존에 요새로 사용되었던 성의 용도를 바꾸어 야구라(망루)를 갖춘 직사각형 형태의 천수각을 건설한 것입니다. 물 없는 해자와 계단식으로 된 요새로 둘러싸인 성의 천수각으로 이어지는 가파르고 좁은 길에는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높은 성벽과 각종 장애물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야마부키 성에서는 은광과 과거 활동의 중심지였던 산나이 마을, 그리고 일본해에 있는 항구인 도모가우라로 향하는 길을 어떠한 방해도 없이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즉 야마부키 성을 지배하는 것은 은광 지배의 핵심을 소유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적대 관계에 있던 아마고 씨족과 오가사와라 씨족이 여러 차례 성을 공격했지만, 그중 누구도 오랫동안 성의 지배권을 손에 넣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562년 이와미 은광을 완전히 수중에 넣은 모리 씨족은 야마부키 성을 더욱 요새화했습니다. 그후 야마부키 성에서 다시 대규모 전투가 일어나는 일은 없었지만 1600년, 그 3년 후에 에도(현재의 도쿄) 막부를 개창하고 일본 전역을 통치하게 되는 도쿠가와 씨족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에도 막부가 오모리 지역을 은광 운영의 중심지로 삼게 되면서 야마부키 성은 점차 쇠락해 갔습니다.

현재 요가이산 주변에는 돌담과 성벽의 흔적만이 남아 있습니다. 성의 주곽이 철거된 자리는 자연으로 되돌아 갔지만, 산 정상의 성채 등 장소를 알면 찾을 수 있는 몇몇 흔적을 여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상에서는 아름다운 해안선도 바라다 보입니다. 도모가우라 도로의 시작점부터 약 1시간 정도면 등산할 수 있지만, 일부 걷기 어려운 구간이 있어 방문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